

石油의 世界史

— 비정한 경쟁 —

—大韓石油協會 弘報室—

1920년에는 석유가 아직 세계에너지의 10분의 1을 차지하는데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제1차세계대전 직후에 사람들은 스피드와 오락에 열중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격적인 자동차시대가 탄생하였으며, 최초의 상업적 비행이 개시되었다. 군함의 重油사용을 본받아 商船도 重油를 이용하게 되었다. 석유수요는 증가하게 되고 지리적으로도 넓게 확산되었다. 대체로 주요한 소비중심지는 점차 생산의 중심지에서 멀어져 갔다. 석유회사는 계속 다양화되고 있는 제품을 위해 도처에 저장소를 건설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처럼 시장은 세계각지로 확대되어 갔다. 1929년의 大不況도 거대한 석유산업의 발전을 약간 지연시키는데 지나지 않았다.

석유산업은 항상 공급부족문제가 따라다녔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해결될 수는 없었다. 이 공급부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고 확실한 原料源을 확보하려고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이와 같이 많은 나라들이 석유탐사에 노력을 경주한 결과, 美國을 예로 들어 보면, 原油가격이 채산성을 상실할 정도였다. 모든 중요한 產油지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유럽은 최근까지도 석유의 대수출국인 美國에 의존하지 않고 석유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한편 美國人들은 가까운 장래에 석유가 부족할 것이라

고 끊임없이 예고하는 예언자들의 말에 따라 미래의 세계적인 大石油州, 즉 멕시코, 카리브海峽 주로 베네수엘라, 中東의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카타르, 쿠웨이트 등에 진출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다.

일류회사의 힘의 바로미터이며 중요한 목적이었던 정제와 수송은 2차적인 것이 되었으며, 그 대신에 생산과 판매가 그 주요부문으로 되었다. 이들 분야에 있어서도 변함없이 美國의 獨立系會社가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一貫성을 갖는다는 것, 즉 동일산업에 있어서 생산에서 판매까지의 모든 작업을 관리·통제하는 大회사는 전에 록펠러가 시작했던 조직에서 類推하며, 「트러스트」라고 불렀다. 그러나 「트러스트」라는 말은 점차 나쁜 의미로 사용되었다.

제1차세계대전부터 제2차세계대전에 걸쳐 국제적으로 「카르텔」을 형성하려는 최초의 시도가 있었다. 카르텔은 19세기에 獨逸人들에 의하여 처음으로 만들어진 횡적 통합의 형태였으며, 동일한 활동에 종사하는 각각의 기업이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하는 것을 말한다. 카르텔은 당시 경제철학의 중요한 표현의 하나였으며, 주지하는 바와 같이 사탕, 다이아몬드, 커피, 또는 朱錫에 관한 유명한 카르텔이 많이 결성되었다.

카르텔은 점차 불황산업을 보호한다는 의도에서 만들

어졌다. 대회사는 파국적인 경쟁에 종지부를 찍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이 방법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협정은 아주 걸잡을 수 없는 경쟁이 다시 치열해짐에 따라 결코 영속할 수는 없는 것이었다.

1920년에서 1940년에 걸쳐 기술의 진보는 눈부시게 이루어졌다. 사람들은 석유에 대하여 魔術을 보는 것과 같은 막연한 염려를 전면적으로 떨쳐버린 것은 아니었지만, 그후 그 불가사의한 석유에 대해 한층 친밀감을 느끼게 되었다. 프랑스의 콘라드 슈룬벨지에와 다비트 슈룬벨지에에 의하여 땅속의 電氣探查法이 발명되었기 때문에 탐사의 범위가 극도로 좁혀졌다. 석유지질학은 1930년경 결국 탐사현장에 도입되었다.

정제에 관한 특허는 석유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제품의 규모를 확대함과 아울러 그 품질을 개량하면서 점차 出願되기 시작했다. 分解蒸溜法(Cracking)과 接觸改質法(Reforming)에 의해 重質分子로부터 비중이 높은 제품이 제조되었으며, 각종의 석유를 구성하는 성분중 최소의 부분에 대해서도 그것들이 갖고 있는 모든 가치가 부여되었다. 곧 석유는 그 놀랄만한 가능성을 나타냈다. 파이프라인의 건설기술과 탱커에 의한 수송기술은 끊임없이 발달하였다. 이처럼 최초의 강철제 파이프라인은 탱커가 대기하는 기계화된 항구까지 큰 뱀처럼 사막 가운데를 뻗어 나갔다. 세계의 모든 도로는 석유에서 만들어진 아스팔트로 포장되기 시작했다.

1920년 4월 25일 연합국가에 열린 산 레모회의¹⁾는 中東油田의 배분과 그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전에 英國人과 獨逸人에 의하여 설립된 터키石油會社는 재편성되어 프랑스와 美國을 받아들였다. 석유생산에 관한 최초의 대콘소시움(國際共同機關)이 中東에 설립된 것이었다. 이 콘소시움에는 英·프랑스·美國·페르시아·로얄 더치셀, 1924년에 「프랑스石油」가 된 프랑스그룹, 7개사로 구성된 美國그룹이 참여했다. 美國의 7社 가운데 5社는 이 콘소시움에서 이탈하고, 뉴저지 스탠다드와 소코니모빌 2社가 최후까지 남았다. 이들 5大회사 외에 「5퍼센트의 上典」으로 불리우며 유명하게 된 수수께끼의 아르메니아인 굴베키안씨가 그의 서비스의 보수로서 의

결권을 갖지 않는 5퍼센트의 지분을 인정받았다.

英國에 귀화한 아르메니아인이며 콘스탄티노플 宮廷에서 매우 평판이 좋았고, 또한 책략가였던 굴베키안은 前에 메소포타미아(현 이라크)의 利權을 획득하기 위해 回教主에게 환심을 사려고 노력했던 로얄 더치 셀 그룹의 대리인이었다. 그는 美國회사 외에 獨逸회사나 英·글로 페르시아石油와도 의견이 충돌하였으나, 우선 유럽의 기업을 연합하여 美國그룹에 대항하려고 결심했다.

이렇게 해서 1912년에 英國人과 獨逸人에 의하여 드디어 터키石油會社가 설립되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대단한 수완을 발휘하였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 회사에서 나오는 이익의 5퍼센트를 굴베키안에게 주기로 한 것은 그가 충실하게 봉사했던 로얄 더치 셀과 英·글로 페르시아石油였다. 이 5퍼센트가 수년동안에 수백만파운드의 가치로 급성장할지도 모른다는 점을 당시 이들 英國회사들은 생각해 보지도 않았다.

굴베키안은 美國人 특히 록펠러에게 정면으로 반대하였다. 이 반대가 최종적인 협정—이 협정에 근거하여 현재의 이라크石油가 탄생되었다—을 체결하는데 오래동안 장애가 되었다. 따라서 美國의 2大회사가 콘소시움에 참여하기 위해 1928년까지 기다려야 했다.

이 협정과 함께 모든 서명자들은 赤線(Red Line)協定을 수락하였다. 이 협정에 따르면 新콘소시움의 어떠한 참여자도 中東의 지도상에 赤線으로 구획되어진 지역 내에서는 단독으로 利權을 획득할 수가 없었다. 이 협정은 中東油田의 利權을 둘러싸고 일어날 수 있는 비정한 경쟁을 피하기 위해 채택된 것이었다.

英國의 위임통치하에 있던 이란이 마침내 독립하였으며, 굴드族이 대부분 살고 있는 모슬州를 손에 넣자 터키石油는 이라크石油로 개칭되었다. 英國은 셀과 英·글로 페르시아石油(후의 BP)를 통해 과반수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이 회사의 방침, 특히 기업의 정책적인 기본방침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英國의인 것이 묵시적으로 양해되었다.

註1 : 1920년 4월 19일부터 26일까지 이탈리아의 산 레모에서 열렸던 국제회의. 英·프랑스·이탈리아·日本·그리스·벨기에가 참가하였다. 베르사이유조약의 실시 및 中東의 석유와 위임통치 문제가 토의되었다.

◇ 「赤線」조항에 대한 「門戶開放」주의의 모순

이라크石油은 자신이 원하지 않았는데도 공동사업의 시험대가 되었다. 이 회사에서는 각각의 참여자들이 야망을 품고 자기의 이익에만 신경을 썼다. 생산을 위해 제휴했던 英國, 英蘭, 美國, 프랑스의 각 회사들은 생산된 共有의 원유가 일단 이라크해안을 떠나면 즉시 前의 경쟁자로 되돌아가 버렸다.

산 레모협정에는 英國이 메소포타미아의 油田 개발에 종사하는 모든 회사들의 持分 가운데 25%를 프랑스에 인도하도록 정식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美國人들은 이 계획에서 완전히 제외되어 있었다. 美國의 大회사는 國務省에 사태의 중대성을 긴급히 보고하고 英國정부에 압력을 가하도록 요청함과 동시에, 유럽 뿐만 아니라 기타 국가에 대해서도 판매공세를 강화하였다.

美國은 정식으로 석유탐사설비를 갖고 있는 모든 회사에게는 평등하게 기회를 부여하는 門戶開放의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美國의 회사들은 끊임없이 항의와 협박의 외교수단을 동원하여 7년간 노력을 경주한 결과, 1928년에 겨우 中東의 콘소시움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룩펠러의 적이라고 호언하는 굴베키안의 반대가 모든 협정을 해결하는데에 장애가 되었던 것이다. 격론을 벌이던 어느 날, 마침내 굴베키안은 책상위에 놓여있던 빨간 색연필을 손에 잡고 中東의 지도상에 하나의 큰 선을 거칠게 그리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누구도 이 赤線안에서는 단독으로 鑛區개발을 할 수 없다는 조건으로 타협하는 것이 어떻겠소』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협정을 수락한 美國의 최초 7社 가운데 5社는 곧 그 협정에서 탈퇴하였다. 그러나 新「이라크石油會社」는 성공하였다. 즉 1925년에 이라크정부(英國의 위임통치하에 있던)에 의하여 석유채굴이 허가되었으며, 1927년 10월에 키르쿠크 근처의 바마 구르구르와 카야라의 굴착井에서 석유가 대단한 세력으로 분출하였다.

그후 I. P. C.라는 약칭으로 알려지게 된 이라크石油會

社는 더욱 아라비아半島의 전주변에 걸쳐서 利權을 획득하였다. 그 지역들은 海賊의 해안이 바다로 보이는 카타르, 마즈카트敎主國, 오만敎主國 및 광대한 에덴保護領에 속해 있었으며, 모든 면에서 英國의 주권이 미치고 있었다.

프랑스石油會社는 석유 및 외국의 대그룹에 관한 프랑스정부의 정책이 크게 변경된 결과로 설립된 것이었다. 레몬 포앙카레²⁾는 1923년 9월 20일자의 에르네스트 멜시에³⁾ 앞으로 보낸 편지에서 「國營의 石油그룹」의 창설에 노력하도록 요청하였다. 당시 프랑스정부가 국영석유그룹의 설립에 얼마나 고심하고 있었는가는 다음과 같은 포앙카레의 말에 잘 표현되어 있다. 즉 『정부는 「국가의 석유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의 설립을 희망한다...』고 말하고, 더우기 그에 앞서 『외국 석유회사와의 경쟁에 대비하여 프랑스人들의 노력의 분산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천명하였다.

국가자본 35%의 참여에 의하여 프랑스石油가 설립된 것은 1924년의 일이었다. 이 투자비율은 「앵글로 페르시안石油」에 대한 英國정부의 투자보다는 낮았다. 그후 얼마 안있어 프랑스는 진정한 石油憲章이라고 할 수 있는 1928년의 법률공포에 의하여 이 배타적 정책을 폐지하고 프랑스 본국에서 외국회사의 설립을 인정하게 되었다.

석유생산회사간에 이루어진 최초의 국제적인 제휴를 둘러싼 여러가지 상황과 그 제휴에 앞서 벌어졌던 오랜 암거래나 가적인하고섭을 살펴 보면, 서로 의중을 탐색하고, 마침내는 상대방을 증오하고 그리하여 언제나 가장 격렬한 경쟁이 왜 오래동안 다른 그룹간에서 벌어졌는지 명확하게 된다. 제한된 地圖의 범위내에서는 단독으로 석유를 개발할 수 없다고 하는 지극히 명백한 목적을 갖고 손을 잡고 있으면서도 이들 제휴자들은 변함없는 경쟁자였다.

赤線에 의하여 정해진 「현상유지」를 이유로 일찍부터 I. P. C.의 콘소시움을 탈퇴한 회사중의 하나인 캘리포니아 스탠다드는 바레인群島에서 석유발견의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페르시灣內의 아라비아해안에 위치한 이 群島는 캘리포니아 스탠다드가 이 지역에서 1933년에 油田

註2 : 프랑스의 정치가(1860~1934). 1913에서 1920년까지 프랑스의 대통령으로 재임.

註3 : 프랑스의 설립가(1878~1955). 프랑스의 전기 및 석유문제의 권위자.

을 발견할 때까지는 진주의 名産地로서 알려져 있었다.

페르시아灣이 바다라 보이는 아라비아해안의 전역이 새로 세계의 주목을 끌게 된 것은 油田의 발견만으로 충분하였다. 처음 앵글로 페르시아石油의 발표에 의하면, 이 지역에서는 석유가 산출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바레인島の 성공에 의하여 용기를 갖게된 캘리포니아 스탠다드는 사우디 아라비아의 利權을 획득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였다. 이에 불안감을 느낀 I. P. C 그룹도 이 나라에서 利權을 얻으려고 노력하였으나, 美國人들의 노련하고 교활한 策略앞에 굴복하였다. 이반 사우드王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을 요구받은 英國人들은 그 금액의 지불을 주저하였다. 그 때 美國人들은 왕이 제시한 금액의 반은 이미 왕의 명의로 외국은행에 예금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영수증을 직접 전달하였다. 그것은 中東이나 北아프리카에서 볼 수 있는 아라비아人들의 市場에서 茶飯事처럼 일어나고 있는 가격할인이나 기만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다. 그러나 이 奸策은 주효하여, 캘리포니아 스탠다드는 캘리포니아보다도 더 광대한 사막지대를 탐사할 수가 있게 되었다.

실패와 절망이 몇년간 계속된 후 제 7 호 굴착井은 지구상 최대의 단독석유 鑛床을 발견하였다. 이렇게 해서 풍부한 석유를 손에 넣은 캘리포니아 스탠다드는 광대한 판도를 갖고 있는 텍사스石油會社(텍사코)와 제휴하였다. 이들 2社는 바레인島를 개발한 후 아라비안·아메리칸石油(아람코)의 핵심을 이룬 칼텍스그룹을 결성하였다.

中東의 同지역에는 최후의 미개발지가 하나 남아 있었다. 모든 우거진 녹음과 자원과는 인연이 없는 황금색의 모래로 둘러싸인 가난한 小國, 더구나 英國의 保護領이었던 쿠웨이트가 바로 그 지역이다. 英國회사인 앵글로 페르시아石油의 지질학자들은 이 나라의 석유매장 가능성에 대하여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있었으나, 텍사스州 스피들탑油田의 행운아인 걸프石油은 이 지역에서 확실히 좋은 결과를 얻을 것임에 틀림없다고 소박하게 믿었다. 1933년에 同社는 老首長과 절충하여 이 나라 전역에 걸친 石油利權을 획득하였다.

美國人들의 성공을 우려한 英國정부는 걸프의 利權에 반대하였다. 英國이 취한 이 행위가 정당했다는 것은 결과가 증명하였다. 英國人들은 쿠웨이트首長에 배타적 조

약의 체결을 간청하였다. 그리고 모든 장애물을 동원하였으며, 美國회사의 보고를 받고 격노한 美國務省 대표의 격렬한 항의에 대하여 訴訟不受理를 구실로 반대하였다. 런던주재의 美大使는 당시 걸프石油의 대주주의 한 사람인 앤드류 메논이었다. 그는 母國의 권위와 회사의 대표권을 내세워 英國과 협정을 체결하는데 성공하였으나, 이 때문에 앵글로 페르시아石油와 利權을 절반씩 나누어 가져야만 했다. 이 제휴에 근거하여 쿠웨이트石油가 탄생하였다.

탐사는 1938년에 성공을 거두었으나, 전쟁으로 굴착작업이 진전되지 않다가 마침내는 중단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英國人들은 페르시아(후의 이란)에 전력을 집중하였다. 그곳에서는 앵글로 페르시아石油(후의 앵글로 이라니안石油)가 매장량이 풍부한 油田의 개발과 거대한 아바단정유공장의 경영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제 2 차 세계대전후인 1951년에 앵글로 이라니안石油은 이란에 점수된 후 쿠웨이트에 전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사람들은 모래알 정도 크기의(지도상에서) 이 나라가 세계최대의 석유매장량을 갖고 있다는데 주목하게 되었다.

◇ 멕시코人들은 『석유는 조국을 위해 있다』고 선언

中東에서 석유利權의 가치가 하락하였다 하여 다른 지역에서 석유탐사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소비량의 자연증가에 따라 석유산업의 지상명령인 새로운 補給源의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그 후 수년간에 멕시코, 베네수엘라, 텍사스, 캘리포니아, 인도네시아 등에서 방대한 油田이 발견되었다. 트리니다드島, 아르헨티나, 페루, 콜롬비아, 캐나다등은 보다 조용히 산유국으로 등장하였다.

유럽의 舊생산국가운데 루마니아에서는 1920년과 1933년에 몇개의 아주 우수한 油田이 발견되었다. 갈리시아는 현재도 유럽수요의 상당한 부분을 공급하고 있다. 소련의 경우 생산은 運·不運에 많이 좌우되었다. 소련에 점수된 외국회사들은 우선 그들의 권리를 회복하거나 아니면 배상금을 받기를 희망하였다. 절충이 계속 시도되었으나, 전혀 진전이 없었다. 점수된 스탠다드石油은 그들의 힘을 상대방에게 나타내기 위하여 격렬한 경

쟁을 각오하고 1927년 이후 소련의 석유를 유럽에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멕시코의 유명한 바다 데 오로油田에서는 油井당 하루 생산량이 세계기록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1923년 혁명이 일어남에 따라 이 나라의 장래에 대한 불안과 의구심이 높아졌다. 석유개발은 빈번하게 일어나는 파업에 의하여 점차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1937년의 전면적인 파업에 의하여 작업은 마비되어 버렸다. 정부는 외국회사에 대하여 힘을 배경으로 사태수습을 위한 요구사항을 제시하였으나, 외국회사들로부터 거절당했다. 그래서 칼 데나스대통령은 1938년 석유산업을 국유화하였으며, 油田·석유시설·정유공장은 국유재산이 되었다. 멕시코인들은 이 새로운 富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몰라 당황하였다. 결국 멕시코정부는 모든 수출과 원조를 금지하는 외국회사들의 강력한 보이콧트에 굴복하였다.

그러나 세계대전은 멕시코의 석유에 행운을 가져다 주었다. 점수회사들은 재빨리 호의적인 협정을 멕시코와 체결하는데 성공하였다. 이 협정에 따르면, 멕시코는 연간보상금을 지불하게 되었으며, 또 세심한 주의를 하면서 그 지불을 이행하였다.

한편 멕시코정부는 페멕스라는 略稱으로 유명하게 된 페트레오스 멕시코노스를 설립하였다. 이로써 멕시코인들은 이후 석유는 『국가발전을 위하여 기여할 것이다』라고 천명하였다. 그런데 페멕스가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까지 20년동안 암중모색·실수·혼란의 시대가 계속되었다.

이란의 위기가 1951년 페르시아灣岸의 쿠웨이트에 행운을 가져다준 것과 마찬가지로 멕시코의 위기는 베네수엘라의 발전에 새로운 자극을 주었다. 大戦수년후 갈리브海에 연한 이 나라는 말라카이보湖 주변에서 아주 좋은 油田이 여러 개 발견되었다. 이 나라에 석유개발의 길을 열어준 로알 더치 쉘은 곧 뉴저지 스탠다드에 의해 클레올石油을 설립시켰다. 그 후 걸프石油, 英蘭그룹, 스탠다드의 공동출자로 新회사 메네 그란데石油會社가 설립되었다.

1938년에 이미 2천8백만톤의 석유를 생산한 베네수엘라는 美國과 소련에 이어 세계제3의 산유국이 되었다. 텍사스州와 루이지아나州의 걸프海岸(멕시코灣岸)에서 처음으로 고안·실시된 해저굴착방식은 말라카이보湖의

湖底에서 잠자고 있는 석유를 채취하기 위하여 이용되었다.

이 광대한 瀉湖(석호)는 세계에서 독특한 풍경을 구성하는 석유생산용 망대의 列로 점차 장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美國은 생산 뿐만 아니라 수출에 있어서도 아주 오랫동안 세계 최대 산유국으로서의 위치를 계속 유지하였다. 1930년경 동부텍사스大油田의 발견에 의하여 텍사스州에 막대한 석유자원이 매장되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당시 석유지질학은 상당한 위험을 수반하는 학문이었다. 어떤 탐사자에 의하여 텍사스와 루이지아나에서 알려져 있던 2개의 작은 石油鑛床이 아주 동일한 軸線上에 뻗혀 있다는 것이 지적되었으나, 이들 鑛床만 개발되고 그 중간에 있는 광대한 지역은 탐사되지 않았다. 요행과 선견지명을 유일한 믿음으로 삼고 있던 이 試掘기사는 수명의 친구들을 이 사업에 끌어들였다. 그리하여 이들 투기사들은 이 處女地의 한복판에 들어가서 그곳에 탐사를 위한 망대를 건설하였다. 수주일이 지난후 석유가 굉장한 세력으로 분출하여 이곳에 세계 최대의 油田중에 하나인 동부텍사스油田이 탄생하게 되었던 것이다.

최근의 중요한 석유봄의 하나는 이 油田의 출현으로 야기된 것이었다. 이 때문에 실로 많은 투기, 부정이득, 추태등이 일어났다. 이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앞다투어 많은 석유를 생산하여 하루밤 사이에 석유벼락부자가 되려는 생각에 사로잡힐 정도로 미치광이가 되어 버렸다.

捕獲法規란 지하의 鑛物이 토지의 소유자에 귀속한다고 하는 법칙에 근거하고 있어, 경험의 유무를 불문하고 한개의 망대를 세우기에 충분한 공간만을 임차하면 누구라도 용이하게 한개의 井戸를 굴착하는 「試掘師」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 1932년은 검은 황금의 가장 비극적인 해였다

이 석유봄의 필연적인 결과는 저장시설과 수송수단을 갖고 있지 않은 무질서속에서 넘쳐흐를 정도의 생산과 가공스러운 낭비였다. 수주 사이에 석유의 배럴당 가격은 수달러에서 수센트로 폭락하였다. 1932년은 과잉생산때문에 배럴당 가격이 10센트로 떨어진 비극적인 해였

다. 이 때 美國은 1929년부터 시작된 역사적인 大恐慌 속에서 허덕이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보다 못한 텍사스州知事 존 호그는 군대를 파견하여 新參者가 油田에 접근하는 것을 저지하였다. 그는 생산조정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하고 석유생산의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에 대하여 텍사스州立法機關의 찬성을 얻었다. 이에 놀란 생산업자들은 그를 고소하였으나, 知事は 자기의 소신을 계속 주장하여 결국 법률에 의한 생산조정에 성공하였다.

생산할당의 시도는 이미 1929년 이후 法人인 텍사스州鐵道委員會에 의하여 실시되어 왔다. 본래 철도의 관리와 부정방지를 임무로 하고 있던 철도위원회는 그 이름을 세계에 떨친 석유탄을 즉석에서 해치웠다.

사실 동부텍사스油田의 발견이후 텍사스州 철도위원회는 실권을 수중에 넣고 법률해석에 근거한 유명한 「保存主義」를 고안하였다. 최고참위원이며 의장이기도한 어네스트 톰프슨장군은 2명의 선발된 위원과 수십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美國최대의 석유생산州—그것도 장기간 세계제일의 생산량을 기록하였다—의 석유에 대하여 절대적인 독재자로서 군림하였다. 이 이례적인 직책으로 인해 그는 「텍사스의 황제」라고 불리울 정도였다.

더우기 철도위원회의 결정은 美國 各州의 국경을 넘어 전세계에 영향을 미쳤다. 텍사스州 오스틴의 작은 사무실에서 발표되는 발표문은 지난 30년동안 석유를 생산 또는 판매하려는 모든 장소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다.

「保存」이라고 하는 主義는 油層의 천연가스 에너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는 즉, 최초의 굴착에 의해 소진되어 버리는 거대한 압력을 낭비하지 않으려는 목적과 야만적인 「捕獲法規」의 무분별한 적용에 대하여 제도장치를 설치하며 소유자 및 다른 권리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 이에 따라 생산자에 대하여 그가 이론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석유만을 생산토록 하는 割當制度(Proration)가 생겨났다.

法網을 빠져 나가려는 시도도 많이 일어났다. 드디어 「Hot Oil」, 즉 몰래 생산되어 암시장에서 판매되는 석유가 출현하였다. 1934년에 공포된 連邦法에 의하여 다른 州—美國의 제도에서는 州가 다르면 종종 법률도 달라진다—에서 생산된 Hot Oil의 판매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한 자는 엄벌에 처하게 되었다. 1935년에 텍사스州

를 본받아 일부州는 保存과 割當의 문제에 관한 자문기관인 「共同石油協定委員會」를 설치하였다.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1932년에 대통령에 취임하고 1933년에 뉴딜정책을 발표하였다. 이 정책에 의하여 경제 위기는 극복되었다. 그는 석유문제에 관한 連邦機構인 「石油行政局」을 창설하였다. 이로써 석유의 무질서시대는 완전히 끝났으며 세계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1929년에 로얄 더치 셸의 사장 헨리 디터딩은 석유의 세계공급기구를 창설하기 위한 상호이해와 협조정신을 설명하기 위해 美國을 방문하였다. 이날부터 주회회사들은 생산과 판매수단을 규정하고, 각 제품의 가격을 통일하고, 과잉생산의 억제 및 수송비절감을 위한 협정을 신중히 검토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원칙이 所期の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까지는 수년의 세월이 더 필요했다. 특히 美國의 생산업자들은 원래 개인주의에 투철하였기 때문에 루즈벨트 정권하의 美國에서 反트러스트法の 적용은 상당히 엄격하였다. 그러나 1936년에 랫브 포메넬法이라고 하는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어, 美國内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美國의 회사들은 국제협정을 해결하는 것을 허가받았다.

드디어 비정한 경쟁은 경쟁자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게 되었다. 1939년에 발발한 제2차세계대전으로 이 문제는 모두 해결되었다.

그동안 갑자기 일어난 위기와 비약의 시대를 겪고, 석유산업은 근대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산업의 하나가 되었다. 석유제품은 국가와 군대의 존속상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이 되었다. 제2차세계대전은 제1차대전보다도 한층 더 분명히 이를 입증해 주었다. 2차대전말인 1945년에는 1860년부터 通算하여 70억톤의 석유가 생산·수송·정제·판매되었다. 최초 10억톤은 60년동안에 생산되었으나, 최후의 10억톤은 3년동안에 생산된 것이다. 그후 1960년에는 1년동안에 10억톤, 1979년에는 1년동안에 30억톤 이상을 생산하였다.

이 석유에 의하여 실로 엄청난 富가 일부 특정국가에 흘러 들어갔다. □ 〈계속〉